

# 또래 괴롭힘 그림책에서 나타난 갈등 해결의 주체와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 분석

## A Study on People Directly Involved in Resolution to Bullying Problems and Conflict-Coping Method in Picture Books Regarding Bullying

정은아, 현은자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Eun-Ah Jeong(jeaself@hanmail.net), Eunja Hyun(hyunej6029@gmail.com)

### 요약

본 연구는 또래 괴롭힘 그림책을 살펴보고 갈등 해결의 주체와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또래 괴롭힘을 그리고 있는 그림책 71종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실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갈등 해결의 주체를 살펴보았을 때 피해자가 스스로 또래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본인과 다른 인물이 함께 해결하기와 다른 인물이 해결하기가 뒤를 이었다. 둘째, 갈등 상황에 대한 대처 방식을 살펴보았을 때 자신감을 증대하거나 긍정적인 심리를 획득하는 것, 가해자 무리를 떠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 자신의 능력을 선보여 인정을 받는 것, 가해자에게 도움을 주거나 친절히 대하는 것 등 다양한 대처방식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긍정적으로 여겨지는 대처방식들을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이 이를 바람직한 모델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래 괴롭힘 문제의 해결에서 피해자 본인의 주체성을 강조하되 또래 괴롭힘 문제를 개인이 혼자 풀어야 하는 문제로 치부하기 보다는 사회 공동체적 노력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그림책을 통한 언어 사용 지도의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 **중심어** : | 그림책 | 또래 괴롭힘 | 갈등 해결의 주체 | 대처방식 |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look closely picture books regarding bullying and to analyze people directly involved in resolution to bullying problems and conflict-coping method in those picture books. 71 picture books on bullying were examined in this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1) As person directly involved in resolution to bullying problems, 'victim by himself' settles a conflict situation over half of the books, followed by 'victim and other character' and 'other character alone'. (2) various types are described relatively evenly such as 'getting positive mind or building confidence', 'distancing bullies group or making new friends', 'gaining recognition by showing one's competence off', 'helping bullies or being nice to bullies' for conflict-coping method to bullying problems. In conclusion, the necessity of community effort rather than an individual's own effort to solve bullying problems and possibilities of teaching of language use in those books were discussed.

■ **keyword** : | Picture Books | Bullying | People Directly Involved in Resolution | Conflict Coping Method |

## I. 서론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또래 괴롭힘은 영어 'bullying'을 번역한 단어로 '한 명 혹은 한 명 이상의 사람들에 의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행위에 노출되는 것'을 뜻한다[1]. 또래 괴롭힘은 집단 괴롭힘이나 학교 폭력 등 다양한 용어로 혼용되고 있으며 가해자나 피해자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며 심할 경우 피해자의 자살로까지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2]. 또한 또래 괴롭힘을 최초로 경험하는 연령도 점점 어려워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3] 청소년은 물론 아동 및 유아 시기부터 또래 괴롭힘 문제에 대한 교육과 중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래 괴롭힘 같은 갈등은 인간이 살아가며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작용을 나누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4] Freud와 Erikson은 유아가 경험하는 또래 사이의 갈등을 성격 및 자아발달에서 중요한 요소로 여겼으며 Piaget는 갈등이 유아의 발달에 일조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였다[5]. 이렇듯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것인 동시에 발달의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갈등에 대한 바른 인식과 더불어 갈등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교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유아가 세상에 대해 배우고 문제 상황에 대한 바람직한 대처방식을 학습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모델링(modeling)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다. 아이들은 부모나 교사와 같은 성인 혹은 주변의 또래를 보고 배울 수 있으며 그림책이나 TV 같은 매체 또한 모델링의 대상이 될 수 있다[6][7]. 그림책은 아이들의 전반적인 생활 및 경험 그리고 그 속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8][9] 감정 이입 및 모델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문제적 상황이나 갈등의 해결과 관련한 교수전략으로서 그림책을 활용하는 것은 다양한 상황에서 바람직한 해결 방식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상황에 적합한 표현이나 방식을 전달해줄 수 있다[10].

그림책이 지닌 교육 매체로서의 장점과 또래 괴롭힘

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또래 괴롭힘을 그린 그림책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그림책에 나타난 갈등을 살펴본 국내 선행연구에서는[11][12] 또래 괴롭힘이 아닌 놀이 영역의 침범이나 사물의 소유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갈등을 다루었고, 해외 선행연구[13-15]의 경우 국내에 거의 번역되지 않은 도서를 다루었기 때문에 국내에 번역된 그림책 및 한국 창작 그림책을 대상으로 한 또래 괴롭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자들이 유아교육기관, 학교, 도서관, 서점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서들을 대상으로 또래 괴롭힘 문제의 해결 주체와 대처하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또래 괴롭힘을 묘사한 그림책 안에서 갈등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갈등 해결의 주체와 갈등 상황에 대한 대처 방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또래 괴롭힘 그림책에 나타난 갈등해결의 주체는 누구인가?
2. 또래 괴롭힘 그림책에 나타난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은 어떠한가?

## II. 선행 연구

### 1. 또래 괴롭힘과 관련된 연구

또래 괴롭힘을 경험한 아동은 우울감, 불안, 미움, 원망 등의 감정을 겪게 되며 이러한 부정적 정서가 스트레스와 좌절감으로 이어져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학교 부적응이나 학업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또래 괴롭힘이 뉴스를 장식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면서[2] 또래 괴롭힘이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또래 괴롭힘의 피해 학생 중 초등학교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17]가 있으며 또래 괴롭힘을 최초로 경험하는 연령이 점점 어려워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3]. 실제로 만 5세 유아 92명을 대상으로 또래 괴롭힘 경험을 조사한 결과 69.6%의 유아에게서 또래

괴롭힘의 피해 경험이, 30.4%의 유아에게서 가해 경험이 나타났으며 또래 괴롭힘이 언어적, 물리적, 신체적, 소외적 유형으로 분류되었다[18].

이처럼 유아부터 청소년까지 광범위한 연령이 겪고 있으며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또래 괴롭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사후적 처벌보다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적 교육이 더 바람직하게 여겨진다. 일단 또래 괴롭힘으로 인해 부정적 대인 관계나 공포심을 경험한 후에는 회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후적 치료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19].

## 2. 그림책의 교육적 기능

또래 괴롭힘 문제에 대한 예방 교육에는 다양한 매체가 활용될 수 있는데 이 중 그림책이 효과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림책은 작품 속의 등장인물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 줄 수 있고, 그림책 속에 나타나는 등장인물과 그가 처한 상황에 독자가 자신을 동일시하는 과정에서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도 습득할 수 있다[13]. 이렇게 중재나 교육적인 목적으로 그림책을 활용하는 것, 특히 문제적 상황이나 갈등 해결과 관련하여 교수 전략으로서 그림책을 활용하는 것은 독자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바람직한 해결 방법을 생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표현 및 대처 방식을 배우도록 할 수 있다[10].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에서는 인간이 여러 사회적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관찰하고 모방함으로써 여러 행동을 학습한다고 하며 이 과정에서 모델링의 효과를 언급하였다[20]. 유아는 논리적인 사고력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로 모방 학습에 의존하며 그림책에 제시된 내용이 독자의 이해를 넓히는 동시에 바람직한 모델링이 될 수 있다[21]. 실제로 그림책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이 독자들에게 친사회적 행동을 자연스럽게 모델링할 기회를 제공하며 유아들의 친사회적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22].

또한 그림책은 아동은 물론 부모, 교사, 사서 등의 성

인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쉽게 읽을 수 있고 비용 효율적이며, 학교 및 공공 도서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4]. 특히 그림책은 그것을 읽는 독자의 인식에 변화를 주어 문제 상황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또래 괴롭힘에 관한 아동문학 작품을 읽어 준 후에 또래 괴롭힘의 피해자, 가해자, 주변인들까지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는 선행연구[23]를 통해 문제 상황에 대한 그림책의 긍정적 영향력이 입증되었다.

## 3. 그림책에 그려진 또래 괴롭힘 및 갈등

그림책에 나타난 또래 괴롭힘을 살펴본 연구[13-15]에서는 또래 괴롭힘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 인종, 또래 괴롭힘의 유형, 주변인의 개입 여부, 해결의 방식 등을 다루었으며 협동하기, 친절하게 대하기, 자신감 얻기, 계락을 꾸미기, 무시하기 등의 해결 방식이 나타났다.

한편 또래 괴롭힘이 아닌 일반적인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떼쓰기’, ‘요청’, ‘달래기나 사과하기’, ‘언어적 위협 및 공격’, ‘협상’, ‘무시하기’, ‘공격’, ‘대안 제시’, ‘이유 설명하기’, ‘양보’,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11][12][24].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불가피한 갈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바람직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이러한 해결 과정은 처음부터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시행할 수 있기보다는 성인의 중재나 개입, 바람직한 모델링을 통해 도움을 받게 된다[25]. 갈등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함(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의미하나 본 연구에서는 그림책에 나타난 또래 괴롭힘 상황을 갈등으로 규정하여 아이들에게 교육 매체와 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그림책에서 또래 괴롭힘이라는 갈등 상황을 어떠한 주체가 어떠한 방식을 통해 해결하는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대형 서점들 및 도서관들에서 수집한 그림책들 중에서 아래의 기준에 맞는 그림책들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또래 괴롭힘이라는 갈등 상황에서 갈등 해결의 주체와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을 보고자 하였기 때문에 또래에 의한 괴롭힘 혹은 또래를 포함하는 혼합 연령 단체에 의한 괴롭힘이 글 혹은 그림을 통해 명확히 드러나는 그림책을 선정하였다.

둘째, 의인화된 동물 등장인물이 자주 나오는 아동문학의 특성[26]을 고려하여 동물 등장인물의 경우에도 서사 속에서 또래 괴롭힘을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연구 대상 그림책으로 선정하였다.

셋째, 한국 그림책의 발전사에서 그림책이 질적인 발달을 이루어 도약한 시기가 1990년 이후로 여겨지기 때문에[27] 1990년부터 2017년까지 단행본으로 출판된 그림책을 선정하였다.

넷째, 어떠한 서사나 갈등 상황이 드러나지 않는 정보 그림책이나 만화, 그림이 부수적인 삽화로 들어간 아동 도서는 글과 그림에 이야기 요소가 없기 때문에 [28] 본 연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71종의 그림책이 선정되었다.

## 2. 연구 도구

### 2.1 갈등 해결의 주체

또래 괴롭힘 그림책에서 갈등 해결의 주체는 선행연구[29]를 참고하여 [표 1]과 같이 분류되었다.

표 1. 갈등 해결의 주체

| 갈등해결의 주체      | 내용   |
|---------------|--|
| 피해자 본인        | 피해자가 스스로의 생각과 힘을 통해 본인이 갈등을 해결함                |
| 피해자와 다른 인물    | 피해자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조력해주는 누군가가 등장하여 피해자와 함께 갈등을 해결함 |
| 피해자가 아닌 다른 인물 | 피해자가 아닌 다른 인물이 나서서 갈등을 해결함                     |
| 없음            | 갈등해결의 주체가 나타나지 않음                              |

### 2.2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

또래 괴롭힘 그림책에 나타난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은 선행연구[14][30]에서 나타난 유머 사용하기, 복수하기, 공감하기, 피하기, 자신감 증대, 어른에게 말하기, 맞서기, 도망치기 등에서 피하기와 도망치기 같은 유사한 범주는 하나로 묶고 용어를 좀 더 가독성 있게 풀이하는 방식으로 수정·보완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

|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           | 내용   |
|--------------------------|--|
| 가해자에게 대항하기               | 피해자가 가해자의 괴롭힘 행위를 참지 않고 언어 혹은 신체적으로 가해자에게 맞서거나 대항하는 것  |
| 성인에게 털어놓기                | 교사나 부모님 등 주변 성인들에게 또래 괴롭힘 상황에 대해 털어놓는 것  |
| 가해자를 도와주거나 친절하게 대하기      | 가해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피해자가 나서서 가해자를 도와주거나 자신을 괴롭히는 가해자에게 오히려 친절을 베풀며 잘 대해주는 경우  |
| 자신만의 능력을 선보여 인정받기        | 친구들에게 무시 받던 피해자가 학예회나 공연 등을 통해 자신만의 능력을 멋지게 선보여 또래들에게 감탄과 인정을 받게 되는 경우   |
| 긍정적인 심리 혹은 자신감 증대        | 자신감의 부족이나 부정적인 심리로 인해 고통 받거나, 가해행위를 당하면서도 대처를 하지 못했던 피해자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증대시키거나 용기와 같은 긍정적인 심리를 갖게 되는 경우                     |
| 가해자 무리를 떠나거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히는 가해자들이 있는 무리에서 떠남으로써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또래 괴롭힘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다른 곳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경우                                     |
| 솔직한 감정을 표출하여 공감을 이끌어 내기  | 괴롭힘 행위를 참아오던 피해자가 울음 등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출함으로써 또래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   |
| 가해자를 겁주거나 골탕 먹이기         | 어떤 계략이나 기지를 발휘하여 가해자에게 겁을 주어 쫓아버리거나 가해자를 골탕 먹이는 것  |
| 유머를 사용하기                 | 괴롭힘 상황에서 피해자가 어두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타인을 웃기는 유머러스한 말을 하거나 우스운 흉내 내기 등을 통해, 괴롭힘 상황을 가벼운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경우                               |
| 괴롭힘의 원인을 해결하기            | 예를 들어 글씨를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또래에게 놀림을 받던 피해자가 열심히 노력하여 글씨를 읽게 되는 경우와 같이, 친구들의 놀림이나 괴롭힘의 원인이 되었던 어떤 요인을 자신의 노력을 통해 직접적으로 제거하거나 해결하는 경우 |
| 기타                       | 위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3. 연구 절차

#### 3.1 예비 연구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본 연구를 시행하기에 앞서 예비 연구를 실시하였다. 아동문학 전공 교수 1인과 아동문학 전공 석사생 6인이 모여 분석 대상 그림책을 함께 분석하며 분석 범주 및 세부적 준거를 재구성하였으며 기존의 도구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 이후 아동문학 전공 박사 졸업생 1인 및 석사 수료생 1인과 함께 무작위로 선정한 연구 대상 그림책 6종에 대하여 갈등 해결의 주체와 갈등 상황에 대한 대처방식을 분석하였다. 연구자간 갈등 해결의 주체에 대한 평가 기준의 일치도는 100%로 나왔으며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한 평가 기준의 일치도는 84%로 나타났다. 일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자 간의 논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렀으며 아동문학 전공 교수 1인에게 검증을 거쳐 해당 연구도구를 채택하였다.

#### 3.2 본 연구

예비 연구 과정을 통해 수정·보완된 연구 도구가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연구도구를 이용하여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연구자가 연구 대상 도서 71종을 직접 분석하였다.

### 4. 자료 분석

연구 도구에 제시된 준거를 기반으로 하여 SPSS 24.0을 이용하여 빈도수를 백분율로 산출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갈등 해결의 주체

또래 괴롭힘 그림책에 나타난 갈등 해결의 주체를 분석한 결과, 분석 대상 도서 71종중에서 53.52%에 해당하는 38종의 책에서 ‘피해자’ 본인이 갈등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20종(28.17%)의 책에서 ‘피해자와 다른 인물’이 같이 갈등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인물’이 나서서 갈등을 해

결한 것으로 나타난 책이 11종(15.49%)으로 그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나타난 것은 ‘해결의 주체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2종(2.82%)으로 나타났다. 갈등 해결의 주체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갈등 해결의 주체 분석 결과

| 갈등해결의 주체      | 빈도(종) | 백분율(%) |
|---------------|-------|--------|
| 피해자 본인        | 38    | 53.52  |
| 피해자와 다른 인물    | 20    | 28.17  |
| 피해자가 아닌 다른 인물 | 11    | 15.49  |
| 없음            | 2     | 2.82   |
| 합계            | 71    | 100.00 |

분석 대상 그림책을 살펴보았을 때 ‘피해자 본인’이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는 주체로 나오는 작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작품의 예를 들면, 「티코와 황금 날개」(레오 리오니 글, 그림)에서는 깃털이 검은 친구들과 달리 황금색 깃털을 가져 또래 괴롭힘을 당하던 주인공 티코가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친구들처럼 검은 깃털을 갖게 되면서 갈등 상황을 해소하게 된다. 「겹쟁이 윌리」(앤서니 브라운 글, 그림)에서는 왜소한 체격으로 괴롭힘을 당하던 주인공 윌리가 운동을 통해 몸집을 크게 키우며, 「내 웃음 돌려줘!」(티리 로베레흐트 글, 필리페 호센스 그림)에서는 또래 괴롭힘 때문에 웃음을 잃어버린 주인공이 직접 가해자에게 가서 내 웃음을 돌려달라고 말하며 맞서는 모습을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 본인이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 주체로 나서는 모습이 분석 대상 그림책에서 가장 빈번히 나타났다.

두 번째로 자주 등장한 갈등 해결의 주체는 ‘피해자와 다른 인물’로 피해자와 주변인이 함께 힘을 합쳐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작품의 예를 들면 「고맙습니다 선생님」(패트리샤 폴라코 글, 그림)에서는 학교 교사가 또래 괴롭힘을 당하는 주인공을 따뜻하게 격려하면서 도와주는 모습이 그려졌다. 「보이지 않는 아이」(트루디 루드윅 글, 패트리스 바톤 그림)에서는 같은 반 친구가 따돌림 받던 주인공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주면서 결국 친구들과 다 함께 어울리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넌 왕따가 아니야!」(도리스 레허 글, 그림)에서도 또래 괴롭힘을 당하던 주인공이 친구와 힘을 합쳐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어서 ‘피해자가 아닌 다른 인물’이 나서서 괴롭힘 상황을 해결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다. 작품의 예를 들면 「리제트의 초록 양말」(카타리나 발크스 글, 그림)에서는 한 쪽뿐인 양말로 놀림을 받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이때 엄마가 똑같은 양말 한 짝을 뜨개질로 만들어 주면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나하고 같이 놀래?」(실비아 세렐리 글, 그림)에서는 또래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를 모른 척 하던 같은 반 친구들이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피해자와 같이 놀이주면서 또래 괴롭힘 상황이 해결되는 장면이 묘사되었다.

마지막으로 해결의 주체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가해자들이 이야기의 화자로 등장하여 ‘내 탓이 아니야’라는 말을 되풀이 하는 내용의 「내 탓이 아니야」(레이프 크리스티안손 글, 디 스텐베리 그림)과 또래 괴롭힘의 피해자에게 친구가 한 명 생겼다가 나중에는 그 친구도 떠나버린다는 결말을 맺는 「빠비 이야기」(송진현 글, 그림)가 있었다.

## 2.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

연구 대상 그림책에 그려진 갈등 상황(또래 괴롭힘)에 대처하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분석 도서 71종을 중복 체크해서 나온 총 빈도 81(전체 분석도서 71종 중에서 1종의 책에서 3가지의 대처 방식이, 8종의 책에서 2가지의 대처 방식이 중복 체크 됨) 중에서 15종(18.52%)의 책에서 ‘긍정적인 심리 혹은 자신감 증대’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해자 무리를 떠나거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가 13종(16.05%)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해자를 도와주거나 친절하게 대하기’가 12종(14.81%)으로 나타났으며 ‘가해자에게 대항하기’, ‘자신만의 능력을 선보여 인정받음’, ‘괴롭힘의 원인을 해결하기’가 각각 8종(9.88%) 씩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성인에게 털어놓기’가 5종(6.17%)에서 나타났고 ‘가해자를 겁주거나 골탕 먹이기’가 4종(4.94%)으로 나타났다. ‘솔직한 감정을 표출하여 공감을 이끌어 내기’와 ‘기타’가 각각 3종(3.70%)씩으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유

머를 사용하기’가 2종(2.47%)으로 나타났다.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을 대한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 분석 결과

|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           | 빈도(종) | 백분율(%) |
|--------------------------|-------|--------|
| 긍정적인 심리 혹은 자신감 증대        | 15    | 18.52  |
| 가해자 무리를 떠나거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 13    | 16.05  |
| 가해자를 도와주거나 친절하게 대하기      | 12    | 14.81  |
| 자신만의 능력을 선보여 인정받기        | 8     | 9.88   |
| 가해자에게 대항하기               | 8     | 9.88   |
| 괴롭힘의 원인을 해결하기            | 8     | 9.88   |
| 성인에게 털어놓기                | 5     | 6.17   |
| 가해자를 겁주거나 골탕 먹이기         | 4     | 4.94   |
| 솔직한 감정을 표출하여 공감을 이끌어 내기  | 3     | 3.70   |
| 기타                       | 3     | 3.70   |
| 유머를 사용하기                 | 2     | 2.47   |
| 합계                       | 81    | 100.00 |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을 살펴보았을 때 가장 빈번하게 나온 방식은 ‘긍정적인 심리 혹은 자신감 증대(15종, 18.52%)’였다.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의 예를 살펴보면, 「작은 아이」(제시카 미저브 글, 그림)에서는 무서워서 나무에 올라가지 못해 울고 있는 가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인 주인공이 자신은 무섭지 않다며 자신감을 갖게 되는 모습이 묘사되었다. 「샤를의 기적」(알렉스 쿠소 글, 필리프 알리 튀랭 그림)에서는 다른 친구들처럼 날지 못한다고 놀림을 받던 주인공 꼬마 용이 친구의 격려를 받고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 결국 날아오르는 모습이 그려졌다. 「난 내 이름이 참 좋아」(케빈 행크스 글, 그림)에서는 이름이 남들보다 길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던 주인공이 멋진 이름이라는 칭찬을 듣고 자신감을 갖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어서 ‘가해자 무리를 떠나거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의 모습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존 버닝햄 글, 그림)에서는 친구들과 달리 깃털이 없어 놀림을 받던 주인공 기러기가 친구들과 날아가고 홀로 무리에서 벗어나 다른 장소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모습이 그려졌다. 「귀 없는 토끼」(클라우스 바움가르트 글, 틸 슈바이거 그림)에서도 귀가 없어 놀림 받던 주인공이 친구들의 무리에서 벗어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모습이 나타났다. 「개와 고양이의 영웅 플릭스」(토미 웅게러 글, 그림)에서는 친구들과 다른 외모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던 주인공이 그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에 정착하며 많은 친구들을 사귀는 모습이 묘사되었다.

다음으로 ‘가해자를 도와주거나 친절하게 대하기’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조금 다른 꽃눈이」(윤봉선 글, 그림)에서는 자신을 따돌리던 가해자 친구들이 위기에 처하자 주인공이 나서서 친구들을 무사히 구출해주는 모습이 그려졌다. 「학교 가기 싫어!」(크리스티네 보스틀링거 글, 그림)에서는 피해자인 주인공이 자신을 괴롭히는 가해자를 집으로 초대하여 친절하게 대해주고 칭찬해주는 모습이 묘사되었다. 「외로운 덩치」(앤드루 클레멘츠 글, 요시 그림)에서는 자신을 따돌리던 물고기 친구들이 그물에 잡히자 주인공이 그들을 구해주는 모습이 그려졌다.

뒤이어 ‘자신만의 능력을 선보여 인정받기’가 나타났다. 「올리버 버튼은 계집애래요」(토미 드 파올라 글, 그림)에서 주인공 소년은 여자아이들의 놀이를 좋아하고 반짝이는 탭댄스 구두를 신어 놀림을 받는다. 하지만 장기자랑 무대에서 멋진 탭댄스 공연을 선보이면서 친구들의 인정을 받게 되었다. 「까마귀 소년」(야시마타로 글, 그림)에서는 친구들에게 놀림과 무시를 받던 주인공 소년이 학예회 무대에서 멋지게 까마귀 소리를 흉내 내면서 친구들의 감탄과 인정을 받았다. 「은빛 까마귀」(마르쿠스 피스터 글, 그림)에서는 친구들에게 무시를 받던 주인공 까마귀가 멋지게 하늘 높이 날아오름으로써 모두의 인정을 받게 된다.

다음으로 ‘가해자에게 대항하기’가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피해자가 괴롭힘을 가하는 가해자에게 직접 맞서는 모습을 살펴보면, 「One 일」(캐드린 오토시 글, 그림)에서는 파란색은 멋지지 않은 색이라고 말하며 주인공 파란색을 괴롭히는 빨강색에게 대항하여 「파란색도 아주 멋져!」라고 맞서는 주인공의 모습이 그려졌다. 「도와줘요 친구들이 괴롭혀요!」(안

나 카살리스 글, 마르코 캄파넬라 그림)에서는 자신을 괴롭히는 가해자에게 “당장 그만 뒤!”라고 대항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나타났다.

또한 ‘괴롭힘의 원인을 해결하기’도 대처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고맙습니다 선생님」에서는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해 놀림을 당하던 주인공이 선생님의 격려에 힘입어 글을 읽게 되면서 놀림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난 무서운 늑대라구!」(베키 블룸 글, 그림)에서도 글을 읽지 못해서 무시를 당하던 늑대가 열심히 노력하여 글을 읽게 되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그려졌다. 「외톨이 사자는 친구가 없대요」(나카노 히로카주 글, 그림)에서는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에 우스꽝스럽게 외모를 꾸민 사자의 모습에 친구들이 오히려 도망갔다가, 나중에 사자의 본래 모습이 드러나자 그때서야 친구들을 사귀게 되는 모습이 묘사되었다.

다음으로 ‘성인에게 털어놓기’가 또래 괴롭힘에 대한 대처 방식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빨간 볼」(얀 더 킨더르 글, 그림)에서는 선생님에게 괴롭힘 상황을 털어놓고 나서 그 이후에 괴롭힘 행위가 사라지는 모습이 담겨있으며 「왕따, 남의 일이 아니야」(베키 레이 맥케인 글, 토드 레오나르도 그림)에서도 역시 선생님에게 괴롭힘 상황을 말한 뒤에 대책 회의가 열리고 괴롭힘 행위가 사라지게 되는 모습이 묘사되었다.

이어서 ‘가해자를 겁주거나 골탕 먹이기’가 대처 방식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안녕, 외톨이」(신민재 글, 그림)에서는 피해자와 유령이 친구가 되고, 유령이 가해자들을 겁주어 쫓아내는 모습이 나타났다. 「똑똑한 핀돌리」(자넬 케년 글, 그림)에서는 주인공인 꼬마 하이에나가 유령인 척 하면서 자신을 괴롭힌 다른 동물들에게 겁을 주는 모습이 묘사되었다.

「기타」에 해당하는 작품의 예를 들면 「삐삐 이야기」에서는 피해자가 또래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어떠한 반응이나 행동도 보이지 않고 묵묵히 있는 모습이 그려졌고 「내 탓이 아니야」에는 가해자들이 계속 변명을 늘어놓는 가운데 피해자는 그냥 가만히 있는 모습만 그려질 뿐 어떠한 대처 방식도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솔직한 감정을 표출하여 공감을 이끌어 내기’가 나타났다. 「내 짝꿍 최영대」(채인선 글, 정순희

그림)에서는 말없이 자신을 표현하지 않던 주인공이 마지막에 울음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여 반 아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냈고, 「놀리면 화나요」(아이앤비 편집부 글, 그림)에서는 반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던 주인공이 “너희들이 나를 보고 웃어서 기분이 좋지 않았어.”라고 솔직한 심정을 말함으로써 친구들의 공감을 얻고 사과를 받아내는 내용이 그려졌다.

마지막으로는 ‘유머를 사용하기’ 방식이 나타났다. 「내 귀는 짹짹이」(히도 반 헤네호텐 글, 그림)에서 귀 모양이 짹짹이어서 놀림을 받던 주인공 토끼가 친구들에게 자신의 흉내를 재미있게 내보도록 시킨다. 이 모습에 모두들 웃음을 터뜨리게 되고 결국은 모두 즐겁게 웃으며 어울리는 모습이 그려졌다. 「놀림을 이겨낸 원숭이 무키」(헤더 룬크작 글, 마시 램지 그림)에서는 털이 없어서 친구들에게 놀림 받던 주인공 원숭이가 대머리 흉내를 재미있게 내고, 이 모습을 본 친구들이 주인공을 ‘재미있는 아이’라고 여기면서 함께 어울리게 되는 모습이 그려졌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또래 괴롭힘을 그린 그림책을 대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주체와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및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 괴롭힘 그림책에 나타난 갈등해결의 주체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 본인이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책에 나타난 등장인물의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갈등 상황에서 당사자인 본인이 해결하는 모습이 가장 많이 나타난 선행 연구[29]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갈등 상황이 나타난 그림책에서 등장인물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연구 결과 [28]와도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피해자 본인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서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역량을 강조하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래 괴롭힘 문제가 피해자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만 하는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될 위험성도 있다. 실제로 또래 괴롭힘 문제는 개인이 지닌 요인뿐만 아니라 교육적 요인, 사회, 문화적 요인, 그리고 가정적 요인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이 맞물려서 표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31] 갈등 해결의 주체를 피해자 본인으로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사회가 아닌 한 개인에게만 문제 해결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연구 대상 그림책에 나타난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을 분석한 결과 여러 가지 대처방식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중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긍정적인 심리 혹은 자신감 증대’였고 이어서 ‘가해자 무리를 떠나거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가해자를 도와주거나 친절하게 대하기’, ‘자신만의 능력을 선보여 인정받기’, ‘가해자에게 대항하기’, ‘괴롭힘의 원인을 해결하기’, ‘성인에게 털어놓기’, ‘가해자를 겁주거나 골탕 먹이기’, ‘유머를 사용하기’ 등 다양한 방식들이 비교적 고른 분포로 나타났다. 또래 괴롭힘 그림책에 나타난 대처 방식을 살펴본 선행 연구[13]에서는 가해자를 돕거나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대처 방식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하지만 갈등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 중에서 가해자를 돕거나 친절하게 대하는 등의 친사회적인 행위가 빈번하게 나타난 반면 가해자를 겁주거나 골탕 먹이기 같은 복수하기 식의 대응이 적게 나타난 결과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 괴롭힘 그림책에 나타난 갈등 해결의 주체와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상세한 분석을 제공하였다. 특히 대처 방식들 중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대처방식들은 독자들에게 모델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래 괴롭힘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그림책을 통해 접하고 함께 토론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책은 독자인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그리고 가능한 것과 불가능하지 않은 것들을 다양하게 제시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32]. 그렇기 때문

에 또래 괴롭힘에 노출된 아동들은 그림책 속에 제시된 여러 가지 바람직한 대처 방식을 배워서 시도하고 적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현재 심각한 갈등 상황을 경험하고 있지 않는 아동이라도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미리 대비할 수 있고 또는 주위에 어려운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친구에게는 그림책에 제시된 대처 방식을 알려주거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림책은 유아의 사회성 발달뿐만 아니라 언어 발달을 위한 주요한 매체 중 하나로 유아에게 언어를 전달하고 학습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다[33]. 연구 대상 그림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유아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침으로써 유아의 언어 사용을 지도하고 학습시키는 기회로도 삼을 수 있을 것이다.

\* 본 연구는 정은아의 석사학위 논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 참 고 문 헌

[1] D. Olweus, *Understanding and researching bullying: Some critical issues, Handbook of bullying in schools: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New York, NY: Routledge, 2010.

[2] <http://news.donga.com/3/all/20180301/88918245/1#csidx4ee6ebaf59bc7f7b263353ee7430406>

[3] 이현숙, *그림책 활용을 통한 초등학교 아동의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효과*, 광주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4] 정은실, *유아의 또래지위에 따른 갈등쟁점 및 갈등해결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5] 현우자, *유아의 갈등해결 전략과 또래 수용도 및 피수용도와의 관계*,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6] 최경숙, *아동발달심리학*, 교문사, 2006.

[7] 박소윤, 김민정, “만6세와 만9세 아동이 선호하는 그림책의 장르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7, No.6, pp.9-21, 2017.

[8] 연혜민, 최경, “복스타트 프로그램의 그림책과 활동내용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4, No.11, pp.972-981, 2014.

[9] 유동관, “그림책화면에서 나타나는 은유적 표현방식에 대한 어린이의 인지반응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0, No.7, pp.198-207, 2010.

[10] 이영자, *유아언어교육*, 양서원, 2001.

[11] 박지혜, *국내 창작그림책에 나타난 또래 간 갈등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12] 연혜민, *창작그림책에 나타난 갈등 관계 및 갈등의 구조 분석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13] K. S. Flanagan, K. K. Vanden Hoek, A. Shelton, S. L. Kelly, C. M. Morrison, and A. M. Young, “Coping with Bullying: What Answers Does Children’s Literature Provide?,”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Vol.34, No.6, pp.691-706, 2013.

[14] E. Moulton, M. A. Heath, M. A. Prater, and T. T. Dyches, “Portrayals of Bullying in Children’s Picture Books and Implications for Bibliotherapy,” *Reading Horizons*, Vol.51, No.1, pp.119-148, 2011.

[15] J. Entenman, T. J. Murnen, and C. Hendricks, “Victims, bullies, and bystanders in K-3 literature,”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Vol.59, No.4, pp.352-364, 2005.

[16] 김혜원, “청소년들의 집단따돌림과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에 따른 심리적 부적응 및 학교 부적응,” *청소년학연구*, 제18권, 제5호, pp.321-356, 2011.

[17]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86>

[18] 장은주, *만5세 유아의 따돌림 행동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19] 홍준표, *집단 따돌림의 진단 및 치료방안*, 집문당, 2002.

[20] 이지윤,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을 적용한 가구 디자인 교육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21] 최연지, 정대련, “우리나라 사실주의 그림책에 나타난 형제갈등 구조분석,” 한국어린이문학교육학회, 제18권, 제1호, pp.93-119, 2017.

[22] 박문희, *그림책을 통한 감성교육 프로그램이 만5세 유아의 정서지능 및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23] 이주희, *창작동화에 나타난 ‘왕따’(집단괴롭힘) 현상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24] 조희숙, 전연우, “레오 리오니의 그림책에 나타난 등장인물 간 갈등 양상,” 어린이문학교육연구, 제13권, 제3호, pp.99-133, 2012.

[25] 고인옥,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유아들의 갈등해결전략과 교사의 역할*,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26] 유보리, *현대 창작 그림책에 나타난 어머니상 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27] 현은자, 김세희, *그림책의 이해*, 사계절, 2005.

[28] 이민재, *창작 그림책에 나타난 여행 모티프 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29] 김윤희, *그림책에 나타난 소수자의 이미지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30] P. A. Oppliger and A. Davis, “Portrayals of Bullying: A Content Analysis of Picture Books for Preschoolers,” *Early Childhood Educ Journal*, Vol.44, No.1, pp.515-526, 2015.

[31] 김석희, *초등학교 집단따돌림의 원인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중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32] B. G. Pace, R. M. Lowery, and L. L. Lamme, “Not Like Us: Using Picture Books to Talk About Relational Bullying,” *Multicultural Perspective*, Vol.6, No.1, pp.34-37, 2004.

[33] 김정아, *영아 언어발달을 위한 상호작용적 그림책 읽기 모형의 적용 및 효과*,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저 자 소 개

정은아(Eun-Ah Jeong)

정희원



- 2005년 2월 : 중앙대학교 불어학과(문학사)
- 2018년 8월 :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문학석사)

<관심분야> : 그림책, 아동문학, 미디어교육

현은자(Eunja Hyun)

정희원



- 1982년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유아교육전공(문학사)
- 1984년 : Eastern Michigan Univ.(문학석사)
- 1988년 : Univ. of Michigan(교육학박사)

• 1989년 ~ 현재 :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관심분야> : 그림책, 아동문학, 미디어교육

부록 1. 분석 그림책 목록

|    | 도서명             | 글작가         | 그림작가        | 출판연도       | 출판사     |
|----|-----------------|-------------|-------------|------------|---------|
| 1  | 어들을 무서워하는 꼬마 박쥐 | 게르다 바게너     | 에밀리오 우르베루아가 | 1997       | 비룡소     |
| 2  | 웬델과 주말을 보낸다고요?  | 케빈 헝크스      |             | 2000       | 비룡소     |
| 3  | 학교 가기 싫어!       | 크리스티네 뇌스틀링거 |             | 2000       | 비룡소     |
| 4  | 고맙습니다, 선생님      | 패트리샤 폴라코    |             | 2001       | 아이세움    |
| 5  | 외톨이 사자는 친구가 없대요 | 나카노 히로카주    |             | 2001       | 한림출판사   |
| 6  | 삐비 이야기          | 송진현         |             | 2003       | 창비      |
| 7  | 개와 고양이의 영웅 플릭스  | 토미 웅게러      |             | 2004       | 비룡소     |
| 8  | 부끄럼쟁이 바이올렛      | 캐리 베스트      | 지젤 포터       | 2004       | 문학동네어린이 |
| 9  | 서서 걷는 악어 우뚝이    | 레오 리오니      |             | 2004(1983) | 마루별     |
| 10 | 엘라의 모자          | 카멜라 다미코     | 스티븐 다미코     | 2004       | 대교출판    |

|    |                    |              |           |            |        |
|----|--------------------|--------------|-----------|------------|--------|
| 11 | 외톨이 아기돼지 마리우스      | 크리스텔 데우아노    |           | 2004       | 교학사    |
| 12 | 티코와 황금날개           | 레오 리오니       |           | 2004(1979) | 분도출판사  |
| 13 | 내 짝꿍 최영대           | 채인선          | 정순희       | 2005(1997) | 재미마주   |
| 14 | 들러줘, 내 모자          | 우메다 슌사쿠      |           | 2005       | 시공주니어  |
| 15 | 올리버 버튼은 계집애래요      | 토미 드 파올라     |           | 2005       | 문학과지성사 |
| 16 | 짜장 짬뽕 탕수육          | 김영주          | 고경숙       | 2005(1999) | 재미마주   |
| 17 | 피터의 안경             | 에즈라 잭 키츠     |           | 2005(1969) | 비룡소    |
| 18 | 하늘을 날고 싶은 펭귄 레오나르도 | 한스 드 베어      |           | 2005       | 아이즐북스  |
| 19 | 개미 나라에 간 루카스       | 존 니클         |           | 2006       | 비룡소    |
| 20 | 까만 아기 양            | 엘리자베스 쇼      |           | 2006       | 푸른그림책  |
| 21 | 내 귀는 짹짹            | 히도 반 헤네흐텐    |           | 2006(1999) | 웅진주니어  |
| 22 | 짧은 귀 토끼            | 다원시          | 탕탕        | 2006       | 고래이야기  |
| 23 | 날지 못하는 반딧불이        | 오자와 아키미      | 김동성       | 2007       | 북뱅크    |
| 24 | 내 탓이 아니야           | 레이프 크리스티 안손  | 딕 스텐베리    | 2007       | 고래이야기  |
| 25 | 넌 왕따가 아니야!         | 도리스 레허       |           | 2007       | 웅진주니어  |
| 26 | 놀이터의 왕             | 필리스 레이놀즈 네일러 | 놀라 랭그너 멀론 | 2007       | 보물창고   |
| 27 | 왕따 남의 일이 아니야       | 베키 레이 맥케인    | 토드 레오나르도  | 2007       | 보물창고   |
| 28 | 외로운 덩치             | 앤드루 클레멘츠     | 요시        | 2007       | 한국문테소리 |
| 29 | 깃털 없는 기러기 보르카      | 존 버닝햄        |           | 2008(1996) | 비룡소    |
| 30 | 까마귀 소년             | 야시마 타로       |           | 2008(1996) | 비룡소    |
| 31 | 난 내 이름이 참 좋아!      | 케빈 헝크스       |           | 2008       | 비룡소    |
| 32 | 놀림을 이겨낸 원숭이, 무키    | 헤더 론크작       | 마시 램지     | 2008       | 루크북스   |
| 33 | 똑똑한 핀들리            | 자빌 캐넌        |           | 2008       | 국민서관   |
| 34 | 리제트의 초록 양말         | 카타리나 발크스     |           | 2008       | 파랑새    |
| 35 | 작은 아이              | 제시카 미저브      |           | 2008       | 예림당    |
| 36 | 주근깨가 어때서?          | 줄리안 무어       | 르웬 팜      | 2008       | 책그릇    |

|    |                  |              |            |            |             |
|----|------------------|--------------|------------|------------|-------------|
| 37 | 거울 보는 박쥐         | 스앤루          | 탕탕         | 2009       | 고래이야기       |
| 38 | 난 겁쟁이가 아니야       | 황번레이         |            | 2009       | 해와나무        |
| 39 | 난 무서운 늑대라구!      | 베키 블룸        |            | 2009(1999) | 고슴도치        |
| 40 | 왜 자꾸 날 괴롭혀?      | 주디스 캐슬리      |            | 2009       | 큰북작은북       |
| 41 | 무지개 물고기          | 마르쿠스 피스터     |            | 2009(1994) | 시공주니어       |
| 42 | 체스터는 뭐든지 자기 멋대로야 | 케빈 헝크스       |            | 2009       | 비룡소         |
| 43 | 귀없는 토끼           | 클라우스 바움가르트   | 틸 슈바이거     | 2010       | 아이세움        |
| 44 | 베로니카, 넌 혼자야 아니야  | 로저 뒤바쟁       |            | 2010       | 비룡소         |
| 45 | 얼굴이 빨개져도 괜찮아!    | 로르 몽루부       |            | 2010       | 살림어린이       |
| 46 | 은빛 까마귀           | 마르쿠스 피스터     |            | 2011       | 푸른숲주니어      |
| 47 | 행복한 의자 나무        | 랑 슈린         |            | 2011       | 북뱅크         |
| 48 | 괴롭히는 친구 무찌르는 법   | 데릭 먼슨        | 테라 캘러헌 킹   | 2012       | 정글짐북스       |
| 49 | 괴롭힘은 나빠          | 고정완          | 나누리        | 2013       | 풀빛미디어       |
| 50 | 내 웃음 돌려줘!        | 티리 로베레흐트     | 필리페 호센스    | 2013       | 킨더랜드(킨더주니어) |
| 51 | 도둑 맞은 이름         | 호세 안토니오 타시에스 |            | 2013       | 푸른숲주니어      |
| 52 | 보이지 않는 아이        | 트루디 루드윅      | 패트리스 바톤    | 2013       | 책과공나무       |
| 53 | 사물의 기적           | 알렉스 쿠소       | 필리프 알리 튀렝  | 2013       | 키즈엠         |
| 54 | 도와줘요, 친구들이 괴롭혀요! | 안나 카살리스      | 마르코 캄파넬라   | 2014       | 키득키득        |
| 55 | 빨간 볼             | 안 더 킨더르      |            | 2014       | 내인생의책       |
| 56 | 실룩실룩 하워드 왕따 탈출하기 | 하워드 빈코우      | 수잔 F. 코넬리슨 | 2014       | 걸음동무        |
| 57 | 장난인데 뭐 그래?       | 제니스 레비       | 신시아 B. 데커  | 2014       | 주니어김영사      |
| 58 | 친구가 자꾸 놀려요       | 베스 브래컨       | 제니퍼 벨      | 2014       | 노란우산        |
| 59 | 놀리면 화나요          | 아이앤비 편집부     |            | 2015       | 아이앤비        |
| 60 | 나하고 같이 놀래?       | 실비아 세랄리      |            | 2016       | 푸른숲주니어      |
| 61 | One 일            | 캐드린 오토시      |            | 2016       | 북뱅크         |
| 62 | 겁쟁이 윌리           | 앤서니 브라운      |            | 2016(1984) | 웅진주니어       |
| 63 | 먹구름 달구름          | 안영현          | 김아인        | 2016       | 꿈터          |

|    |                 |           |           |      |         |
|----|-----------------|-----------|-----------|------|---------|
| 64 |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눈사람 | 크리스 브릿    |           | 2016 | 봄의정원    |
| 65 | 안녕, 외톨이         | 신민재       |           | 2016 | 책읽는곰    |
| 66 | 원피스를 입은 모리스     | 크리스틴 발다키노 | 이자벨 말랑팡   | 2016 | 키다리     |
| 67 | 저, 할 말 있어요!     | 저스틴 로버츠   | 크리스티안 로빈슨 | 2016 | 주니어 김영사 |
| 68 | 조금 다른 꽃눈이       | 윤봉선       |           | 2016 | 책읽는곰    |
| 69 | 빨강 캥거루          | 에릭 바튀     |           | 2017 | 북극곰     |
| 70 | 왜 나만 달라?        | 롭 비달프     |           | 2017 | 한림출판사   |
| 71 | 팔코의 새 친구        | 카탈린 세계디   |           | 2017 | 지양어린이   |